

설계경기 | Competition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청사

Changwon District Court Jinju Bra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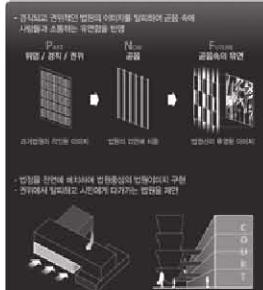
당선작 / 함인선 정회원 • 전영성 정회원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17번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자연경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6,018m ²
건축면적	3,016.06m ²
연면적	13,817.67m ²
건폐율	18.83%
용적률	79.3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발주처	법원행정처
설계담당	김동수, 김대영, 임주섭, 흥양표, 국석래, 강지호, 윤영준, 김희철

법원은 시간의 변화속에서도 사회정의 실현의 구심점으로 각인되어 왔다. 이는 변화하는 시간의 물결속에서도 동시 대인과 소통하려는 유연한 법정신이 투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법원 고유의 법정신을 담기위해 다음 세가지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첫째, 경직되고 권원적인 법원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정함의 상징으로서 법원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유연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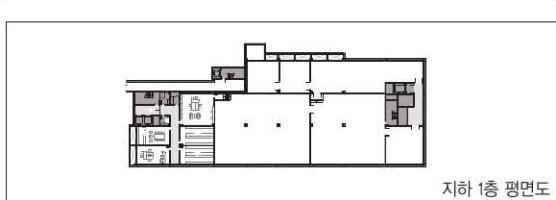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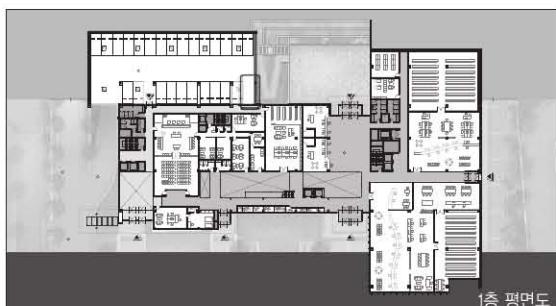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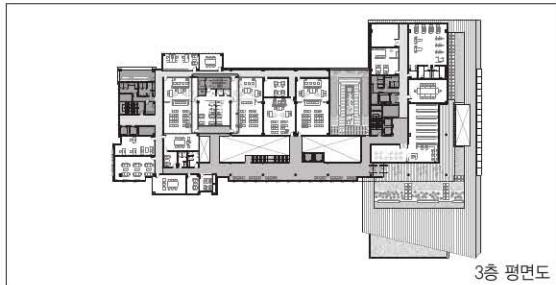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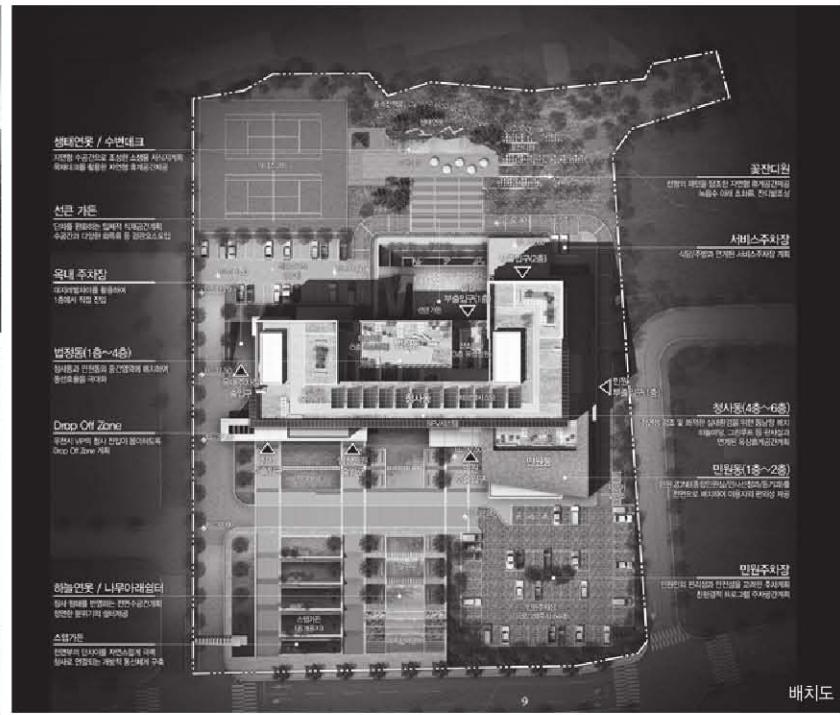
계획개념

둘째, 법정공간을 법원의 중심공간으로 계획, 법원의 정체성을 담는 것.

셋째, 충절과 절개의 도시인 진주의 지역적 정서를 담은 진주만의 법원을 구현하는 것.

이러한 주안점 아래 현재 공공건축물 건립의 학두인 에너지 및 친환경 문제들을 접목하여, 외형적으로도 내형적으로도 법원다운 건축물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청사

Changwon District Court Jinju Branch

우수작 / 정영균 정희원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신안동 417~43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주요용도 업무시설 (법원청사, 민원실)

대지면적 16,018.00m²

건축면적 2,911.81m²

연면적 13,818.17m²

건폐율 21.07%

용적률 81.2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설계총괄 금두연, 심경주

설계담당 홍석구, 류무열, 정용주, 서영대, 이상현,

김은주, 이종원, 이주한, 김은영

프로젝트 배경

기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시설 노후화 및 조직의 증원에 따라 진주시 신안동의 별도 부지에 2012년 준공을 목표하여 추진되는 건축 사업이다.

향후 증원되는 법관 및 직원들의 수요에 맞는 청사와 복지 후생 시설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요구하였고 시민들에게 개방적인 법원 청사의 건축을 요구하였다. 본 사이트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검찰청은 이미 올초에 현상 설계를 공모하여 선진 엔지니어링에서 당선되었다. 발주처는 부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획일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한 현대적 이미지의 법원 청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반영하는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디자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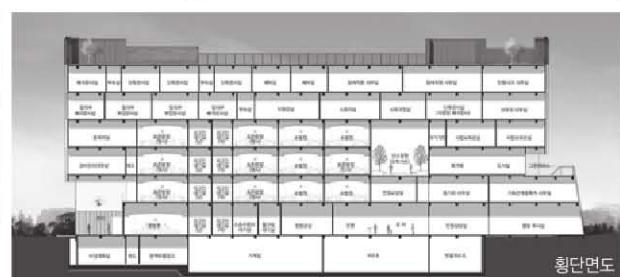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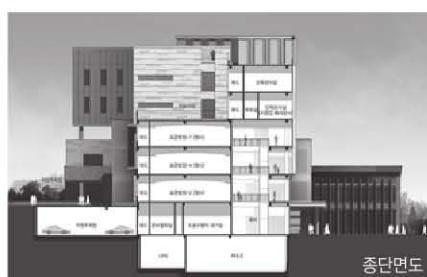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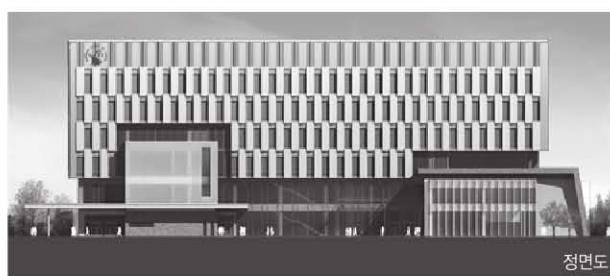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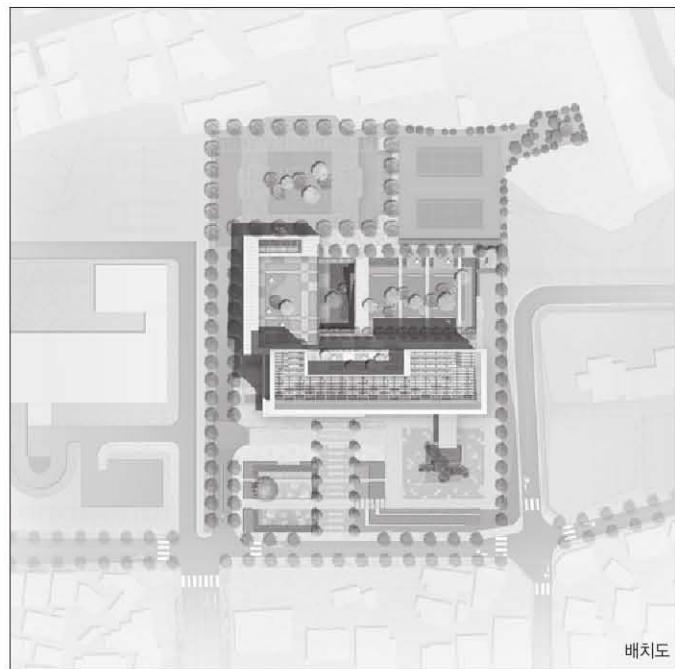
법원 청사 계획은 최근에 법정 구역이 가능한한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열린 법원의 이미지를 계획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유도하였다.

배치 계획에서 민원 동선 뿐 아니라 법정의 접근도 용이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주 과제였으며 법정을 전면 저층부에 민원 시설과 동일한 위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입면 계획에서는 공공 청사에서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 성능이 확보되도록 창호 면적 50% 미만으로 계획했으며, 전면의 상징성과 개방성을 위해 계획한 유리 커튼 월은 남측의 특성을 살려 수평 루버를 설치하여 일사 부하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새롭게 계획될 진주 지원 청사는 중절과 교육, 문화, 예술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는 진주 지역의 정서화 특성을 현대적으로 잘 수용하여, 진주시의 새로운 도시, 문화적 랜드마크로서 작용할 것이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청사

Changwon District Court Jinju Branch

가 작 / 이관표 청회원 • 문영학 정회원
(주)엄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17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16,018㎡
건축면적	3,128.22㎡
연면적	13,822.90㎡
건폐율	19.42%
용적률	86.29%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설계총괄	이영창
설계담당	김선덕, 김용우, 이대길, 강정진, 이동근, 한미화, 이주영, 정호철

계획개념

역사가 숨쉬는 천년의 고도인 진주에, 정의와 올바름을 향해 나아감으로서 국민과 소통하여 참된 정의를 실현하는 곧은 정신을 표상하는 법원을 구현한다.

신뢰를 넘어 존경받는 법원지원청사
진.의.정 (進義亭)

진(進)_자연을 담다.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을 섬기는, 국민을 위해 나아가는 법원

의(義)_시민에게 다가서다.

시민에게 친근한 Mass로 인자성 확보/민사집약배치를 통한 One-stop 시스템 구현

정(亭)_정의를 이루다.

법정 전면배치계획으로 열린법정 구성 /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재판의 신뢰성 상징

계획주안점

- 자연을 담는 청사로 친환경의 업무공간의

확보 및 나아가는 법원의 당당함 표출

- 청사동입면의 수직패턴을 통해 대나무의 곧은 정신을 모티브로 법원의 신뢰성 구현
- 정의를 이루는 법정동으로 법정의 전면배치로 열린 법원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상징
-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동으로 의암을 상징하는 조형성으로 지역적 정체성 확보/곡선의 친근한매스

배치계획 및 외부공간계획

부지 내 지하연암층과 진입시 레벨차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배치영역을 설정하였으며, 법정 전면배치를 통해 민원접근성 향상 및 법원의 상징성과 정면성을 확보하였다. 민원존은 법정존과 기능적 분리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직원주차장과 구분하여 민원주차장을 배치하였다.

법정 전면의 열린광장은 기존 법원이 가지고 있던 권위적 성격에서 벗어나 지역과 함께하



는 열린법원으로서 공공성을 높였으며, 후면마당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성 확보 및 연속성을 고려한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였다.

Step 1. 자리잡기

전면광장의 확보와 대지 후면의 연암층을 고려한 효율적 배치계획

Step 2. 볼륨의 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법정동/ 청사동/ 민원동의 볼륨 계획

Step 3. 프로그램 조닝

법정 전면배치를 통한 민원접근성 향상 및 상징성 및 정면성 확보

Step 4. 연결하기

녹지축과 통경축의 확보를 통해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친환경

법원계획 **그림**

